



한국의 문화재로 등록된 고려시대의 유적지로, 그 온난한 기후와 풍부한 자연환경으로 인해 고려시대에 활성화된 청자 제작지로 추정된다.

청자는 고려시대에 활성화된 청자 제작지로, 그 온난한 기후와 풍부한 자연환경으로 인해 고려시대에 활성화된 청자 제작지로 추정된다.

청자는 고려시대에 활성화된 청자 제작지로, 그 온난한 기후와 풍부한 자연환경으로 인해 고려시대에 활성화된 청자 제작지로 추정된다.

청자는 고려시대에 활성화된 청자 제작지로, 그 온난한 기후와 풍부한 자연환경으로 인해 고려시대에 활성화된 청자 제작지로 추정된다.

청자는 고려시대에 활성화된 청자 제작지로, 그 온난한 기후와 풍부한 자연환경으로 인해 고려시대에 활성화된 청자 제작지로 추정된다.